“소통하는 대한수의사회, 함께하는 대한민국 수의사”

보도자료 KVMA News Release	대한수의사회 Korean Veterinary Medical Association 회 장 : 허 주 형

2022년 5월 2일 배포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☐ 대한수의사회(김동완 부장, 김홍석 과장) 전화 : 031-702-8686 / 전송 : 031-702-1020
☐ E-mail : hs392@kvma.or.kr ☐ Homepage : www.kvma.or.kr
☐ 총 2매 ☐ 사진 2매 별도 ☐ 제공일 : 2022년 5월 2일

대한수의사회-대한한돈협회, 한돈의료체계 정착 및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한 상호협력 약속

☐ 대한수의사회(회장 허주형)는 5월 2일(월) 제2축산회관에서 대한한돈협회(회장 손세희)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, 한돈질병 청정화 및 한돈의료체계 정착을 통해 안전한 축산물 생산과 동물복지를 증진하고 나아가 국민 건강 향상에 기여하고자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.

☐ 양 단체는 지난 몇 년간 국내 한돈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구제역, 아프리카돼지열병(ASF) 및 소모성 질환 등의 조기 근절과 전파방지 등을 위해서는 서로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임에 동의하고, 산업 발전과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해 한돈의 가치를 보존·발전시키는데 함께하겠다고 밝혔다.

□ 주요 협력 분야로는 ▲국내 돼지 질병의 청정화 ▲한돈의 바른 가치 홍보 및 산업 활성화 ▲질병 및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수의학의 발전과 한돈의료체계의 정착 및 발전 등이 있다.

□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은 “국내 수의계를 대표하는 대한수의사회와 협약식을 갖게 되어 매우 기쁘며 앞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, 구제역, 소모성 질병 등 한돈산업의 큰 피해를 발생시키는 질병들의 조기 근절을 위해 많은 자문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”고 말했다.

□ 이에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은 “그동안 한돈의 브랜드화 및 기술향상, 농가의 권익보호 등 국내 한돈산업의 발전과 국민건강 향상에 힘써온 대한한돈협회와의 상호협력을 통해 아직 미완단계인 한돈의료체계를 확립하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과 함께 한국형 동물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.”고 화답했다.

〈끝.〉